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8-2차 임시회의
	일자	2021.02.03. 13:0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X	○	○	10

1. 보고 안건

1. 행정부처 간 간담회 진행

- 2021.02.02. 17시 기획처. 참여인원: 총학생회장단, 간호.비대위, 경영.정, 통공.정
- 논의내용 보고

총: 논의내용 보고 드리겠다. 저희가 회의록 작성이 늦어져서 구두로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2학기 등록금 환불 재원 마련에 대한 학교의 진행 상황과 예산 전용 계획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학교 측 답변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최악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상태가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다. 현재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가용 가능한 금액은 7.8억이라고 한다. 7.8억에 대해서는 논의 안건에서 한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계열별 등록금 산정의 기준, 등록금이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였다. 그에 대한 학교 측 답변은 우선 시설관리비, 장학금, 학생 경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등록금 60% 그리고 비등록금 40%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우선 계열별 등록금은 교육 단가를 산출을 해서 계열별로 등록금을 배정을 한다고 한다. 비등록금이 40%나 차지하는 교육비로 인해서 교육비 산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학생 측의 입장으로는 교육단가 산출을 해달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교육단가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학우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중운위 대표자 및 학생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지?

부총: 아까 학교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이 7.8억이라고 설명 드렸다. 이중에 6억은 학교에서 잔여비 등을 모아서 마련한 예산이고 1.8억은 얼마 전에 교직원 노조에서 학교 측에 학생들 지원을 명목으로 1.8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7.8억이 된다는 점 설명 드린다.

총: 계열별 등록금 산정에 대한 질의 있으신지? 그러면 세 번째 질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임의 장학 기금과 임의특정 목적 기금이라 함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우선 법상 명시되어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명시했다고 하고, 임의라고 붙은 것들은 특정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은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2020년도 임의장학기금의 사용은 특별장학금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해주셨고, 21년도 사용 계획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성을 편성했다고는 말씀해주시지 않았다. 혹시 학교 측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신 대표자분들이 계시는지? 어제 참석한분들?

간호.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장학기금에 대한 사용 또는 목적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쭙 볼 때 임의장학기금 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게 장학금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되는 임의적인 돈이나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다. 근데 그렇게 여쭙봤을 때 말은 장학기금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걸 장학금으로만 수여하고 이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있는 장학금이고 그렇다면 왜 임의로 표기를 하였냐고 여쭙봤을 때 모든 장학금을 포함해서 임의장학기금 이라고 표기를 하였고 이는 대학 사립 학교법에 따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건 목적이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총: 하나 더 덧붙이자면 20년도에 170억이었던 임의장학기금 및 특정목적기금이 21년도에 290억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는 증액 편성된 이유는 먼저 올해 예정돼있는 교육환경 개선공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기금이 재난기금 마련이나 혹은 작년에 발생한 수익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로 측정되어서 290억으로 증액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임의장학기금의 경우에는 20년도에는 1학기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 비용이 일부 있고 학부/과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들이 있다. 해당 장학금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총: 질의 있으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네 번째 질의이다. 2학기 미집행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미집행 금액 자료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20년도 가결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2021년 본예산이 편성이 된 현 시점에서 2학기 미집행 금액이 있는 것은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학생 측은 현재 학교가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가용 가능한 금액인 6억에 대한 출처를 밝혀달라는 것을 재요구 하였고 관련 자료는 등록금 환불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한 번 더 요구할 생각이다. 질의 있으신지? 질의한 e에 대한 설명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겠다.

부총: 지금 알파벳 E에서 2번과 3번을 질의를 했었는데 먼저 교내장학금, 실험실습비 지출예산의 사용계획은 먼저 작년도에 이월된 학생경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다고 한다. 해당 학생경비를 지출할 예정이고 또 작년도에 미진행한 학생대상 사업을 추가적으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의 지출계획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재정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잡손실 지출에 대해서는, 이 잡손실 지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거나 혹은 장학사업의 수혜 대상이었는데 자격이 박탈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돈을 해당 학생에게 지불하거나 혹은 그 손실을 메꿔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잡손실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표기되고 사용 계획 또한 작년도 자퇴생에 대한 등록금 환불 조치 등으로 사용되는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비: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여도 되는지? 그러면 교내외 장학금이 이제 학생경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이월된 학생 경비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것의 대부분을 수용해야되서 그쪽에 사용해야된다고 말씀해셨고 잡손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잡손실 이라는 표현이 지난년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올해 예산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올해 일어나는 그런 손실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손실들을 매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총: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신지? 없으신 걸로 하고 F. 실험실습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전에 받은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하였고 타계정 전용과 관련된 것은 우선 타계정 전용이라 함은 실험실습비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말 그대로 계정만 전용으로 해서 사용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는 실험실습비의 하나라고 말씀해주셨고 실험실습비 계정으로 24억에서 31억을 사용을 하고 31억에서 타계정 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6억 정도 된다고 한다. 총 합치면 본예산은 31억, 그리고 집행한 규모는 30억 8900만원인데 2021학년도 이월된 예산 4억 6900만원을 합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험실습비가 31억으로 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규모는 35억에 달한다. 이에 대한 모든 금액들은 학생들을 수혜 대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실험실습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말하는 요구는 학교본부 측에서는 실험실습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고 실험실습비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단과대 학장님들과 학과장님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따라서 학생 대표자분들은 실험실습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책임에 대해서 학교 측과 논의를 하려면 해당 단과대 학장님들과 학과장님들이랑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어제는 아무튼 행정부처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실험실습비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내규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내규 관련한 질문은 원래 질의를 하러다가 제했다. 그리고 타계정 전용의 경우는 타계정 전용이 실험실습비 기존 회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해서 타계정 전용에 대한 절차가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서 타계정 전용을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총: 질의 있으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G. 본부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질문이다. 20년도에 141억의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1학기 당시 특별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은 141억의 예비비 책정은 현시점에서 141억의 예비비가 책정이 된 거고 당시 1학기 때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중간점인 1학기 말에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상 예비비를 가결산안이나 예산안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신지?

부총: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 특별장학금 지급 시기는 회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명목의 비용이 없었고 나중에 가결산을 해보니 141억이 있더라는 답변이었다.

총: 네. 두 번째 질문이다. 교원의 출장비용인 여비를 왜 등록금 회계로 편성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우선 교육의 업무, 그러니까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출장에 대한 교통비는 등록금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교육의 업무의 예시로는 타 대학이랑 MOU 체결 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신지? 세 번째 질문이다. 리스 임차료 중 관용차량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등록금 회계로 쳐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였고 맞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정리를 하자면 총장단에서 사용하는 관용 차량에 대한 경우에는 등록금 회계가 아니라 비등록금 회계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질의 있으신지? 다음 질문이다. 우선 통신비, 차량운반구 그 비용의 명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통신비라고 함은 교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전화, 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전화, 아니면 업무용 유선전화,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지출되는 명목이 통신비라고 말씀해주셨고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는 관용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며 업무용 차량에 사용되는 금액을 차량운반구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질의하실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혹시 저 질의해도 되는지?

총: 네

사과.부: 그 조금 지났긴 했는데 뒤에 1번에 20년도 141억의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특별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답변을 들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예비비를 61억으로 책정 했었는데 지금 쓰지 않고 가결산안에 쓰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한 처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는지?

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사과.부: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61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지?

총: 네 그거에 대한 질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사과.부: 네 알겠다.

총: 해당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고 예산팀에 전화해서 구두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부총: 네 그리고 G.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상에는 단기수강료가 등록금 수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회계분류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예산 팀장은 이에 대해서 단기수강료는 일단 등록금 수입이 아니고 자료에서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확인하였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총: 네 H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201관, 205관 신축비용 포함여부 설명과 차후 신축비용 조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아직까지 미정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건축기금을 얼마나 201관과 205관에 재원에 조달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대회장님?

인문.정: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단과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학교 측이랑 학교 시설팀 혹은 학생 지원팀, 인문대 교학지원팀이랑 추가로 간담회를 잡아서 좀 구체적인 내역들을 한 번 더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총: 네 감사하다. 네 두 번째 질문이다. 학교본부 차원에서 법인 전입금에 추가확대 요청 요구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필요시에 두산 법인에 법인전입금에 추가확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네 총장님께서 간헐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

부총: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 질문은 제가 했는데 일단 법인전입금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법인을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기획처장, 예산팀장 그리고 기획팀장의 개인적인 사건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그 기획처장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요청은 이따금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 법인이라고 하면 두산인데 두산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통해서 전입금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측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관련해서 법인전입금은 전체 수익의 1.4%밖에 안 되나 법인이 학교의 의결권이나 이사 선출권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을 진행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는, 기획처장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면 총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법인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본인의 사건을 밝혔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행정부처 관계자의 개인적인 사건을 물어본 질문이었고 전체적인 질의내용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답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총: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란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2. 등록금환불협의체 2차 회의

- 2021.02.03. 17시. 참여인원: 총학생회장단, 경경.정

총: 질의사항 있으신지? 네 보고안건 넘어가도록 하겠다.

2. 논의 안건

1. 등록금환불협의체 2차 회의 대책 논의

- 중운위 입장 수립

총: 논의안건이다. 등록금 환불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를 해야한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학교는 가용한 재원이 6억+1.8억 해서 7.8억이 현재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가용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7.8억에 대한 비율을 단순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선 성적장학금의 10%로 원복을 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등록금 환불의 비용은 약 1~2%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따라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3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첫 번째로, 성적장학금을 10%로 원복을 하고 1~2%의 등록금 환불을 진행을 한다 그게 첫 번째 옵션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으로는 지난 1학기과 동일하게 성적장학금을 3%로 하향조정하고 그 7%에 대한 금액은 등록금 환불의 비용으로 전용을 하여 약 4~5%를 환불을 해 드리는 것이다. 아니면 세 번째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의 중간점을 도출하여서 하나의 안을 만들 수는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안이나 추가 안이 있으시다면 대표자분들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 질문 있는데 지난 학기에 6% 환불이, 1학기에 받은 거는 어느 비용에서 환불 받은 건지 알 수 있는지?

총: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38억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졌고 해당 38억은 성적장학금이 3% 하향조정 됨에 따라 그 7%의 금액분 그리고 외국인 장학금의 감면에 따른 그 금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장학기금을 통해서 38억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부총: 일단 지금 3가지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총학생회 내의 정확히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는 선거 시에도 성적장학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도 해당 의견은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 가지 요건들을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이 틀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성적장학금을 3%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등록금 환불 비용으로 추가 투입하더라도 1학기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 절충안이라고 하면 성적장학금을 지난학기에는 3% 감면했으나 5%나 7% 감면하는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 비용을 등록금 환불 비용에 추가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학기과 상응하는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것이 또한 통계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총학생회 집행부의 입장은 성적장학금이 사전에 학생들과의 약속이고 성적장학금 감면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것이 학생들과의 그 성적장학금을 감면하지 않겠다고 선거시에서부터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는 차라리 10% 성적장학금 원한보전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1~2%의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생 대표자 측의 설명이나 양해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유를 설명 드리는 경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 네 해당 의견은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이고 다른 대표자분들도 단과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우선적으로 어제께 행정부처 간 간담회를 참여했었는데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행정부처간 간담회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제 들어갈 때도 등록금 환불 협의회 전에 행정부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까볼 수 있는 때는 까보자 학교의 재정 상황을 알아보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중운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들어간 입장으로써 행정부처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견, 패 같은 것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걸 보았을 때 진짜 7.8억 이외의 돈이 더 있다면 그걸 더 굶어모아서 하고 싶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내주신 3가지 의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기반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3가지 외에도. 사실 갑자기 회의를 통해가지고 3가지 안중에 골라야 된다고 해서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당황스럽다. 봤을 때 제가 참여했던 입장으로서는 정말 돈이 7.8억원으로 논의가 되는구나 싶었고 7.8억 마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행정부처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인문.정: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혹시 그러면 성적장학금을 지난 학기랑 동일하게 감면을 했을 때에도 4~5%인 금액인거죠 실납부액의?

총: 네 저희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통계적 수치를 내 봤는데 한 등록금 반환 비율이 한 4~5%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부총: 어제 드린 표에 따르면 성적장학금을 원안대로 지급하면 총 20억이 소요된다. 그리고 지난 학기처럼 성적장학금을 3%만 감면했을 때에는 10억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학기처럼 3%를 감면하면 10억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17.8억이면 지난학기의 38억과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상응하는 수준의 등록금 환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지금 현실적으로 든다는 게 회장단의 판단이다. 그리고 의견정립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논의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일단 아까 10% 원한보존과 1~2%의 등록금 환불은 지금 학교의 가용예산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그에 더불어서 오는 4월 21일에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 해당 사학법 개정안은 용도가 특정된 적립금이라도 재난 등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명목에 한해서는 이사회의 결을 통해서 적립금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개정안의 골자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지금 있는 틀 안에서는 성적장학금 원한보존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되 이 사학법 개정안은 학생 측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이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단위별 입장을 내주시면 될 것 같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지난 회의를 모두 참석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학교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성적장학금은 학교 측에서는 3%로 고정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로 인해서 그 이외의 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학우들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애초에 성적장학금을 전과 같이 10%로 하는 것을 학우분들께서 많이 원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이 학우분들의 등록금을 내신 학우분들 모두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으로써 저희 경경대는 지금 단순

위 의견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회장과 저는 총학생회 집행부와 입장이 동일한 생각이다.

간호.비: 혹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학법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 건지?

부총: 4월 21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간호.비: 네 제가 알기로도 4월부터 적용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이 그 결산이 3월에 끝난다. 그러면 그 법 시행일이 4월이면 이게 고려가 될지 부터 고민이 된다.

부총: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의 등록금 환불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당장의 사학법 개정안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학생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학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등록금 환불 협의의 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을 활용한 추가적인 금액 지급이라든지, 장학방안을 학교와 함께 협의를 해야 등록금 환불 협의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이해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간호.비: 좋은 것 같고 그러 방식으로 모두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2020년도 2학기 이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휴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등록금 환불의 색깔을 띠는 것은 이번 등록금 환불이 끝인 것 같고 이후 4월 이후에 적용해서 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2021학년도 재학생 기준으로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상황 고려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약간 학교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왔을 때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학교의 의견을 대변한다라든지 그런 학교의 입장 쪽에서 생각을 한건 아니고 학교의 상황이 이러한 한계치가 이정도인 것 같으니 이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부총: 네 제가 지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중운위 내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단운위별로도 생각을 좀 해보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방금 간호대에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적용 가능한 방안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21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실질적인 논의도 해당 시점에서 시작될 것인데 그에 대한 사전 협의정도는 지금 등록금 환불 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학생 측에서 요구나 의견을 제시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 드린 것 이고 관련해서 단위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우선적으로 저는 등록금 환불은 환불 자체에 대한 의미와 학생들이 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이 이제 환불 금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학우분들께서 설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금액을 저희가 처음에 10%로 생각을 했다. 설문을 돌렸을 때 가장 많은 응답 수였기 때문에.

총: 8~10%

간호.비: 네 8~10%. 근데 그거 외에는 등록금 환불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이 마땅히 있나 라고 생각이 든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재정상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이러한 재정상황이다 라고 했던 그 요구 중에 절충안을 선택을 한 게 6%였던 것이고 올해도 그렇게 상호간의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성적장학금 감면을 작년엔 하면서 6%였

다. 근데 사실 성적장학금을 감면하는 거나 학교가 좀 무능력한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만큼 성적을 뿌려놓고서 성적장학금을 감면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성적장학금 감면은 없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남은 금액만큼만 등록금 환불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랬을 때 저는 성적장학금 감면 없이 남은 금액으로 등록금 환불을 진행을 하여서 1.2% 그 정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금 환불의 의미를 가지고 가고 등록금 환불은 이뤄내되 학교의 재정에서 뭐 더 받아낼 수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네 예술대학 의견이 있는데 그 사학개정법 그거가 아직 뭐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에 적립금이나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등록금 요구가 환불 요구가 그렇게 높은 상황임에도 좀 되게 이성적으로 행정처에서 뭐 7.8억 정도밖에 못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여기서 저희도 타협을 본다기 보다는 학교 측에 뭐 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학생들의 의견도 이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의 체감상 지금 등록금 환불 요구가 너무 시급하고 좀 퍼센테이지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으니까 솔직히 조금 더 저희들의 학생들의 의견을 좀 생각을 해달라 돈을 좀 더 써 줄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조금 학교측에서도 노력을 해서 좀 더 써달라라고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가오는 협의체에서. 뭐 그 정도 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나오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저는 뭐 7.8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냥 계산상으로만 진행된 것 같아서 학교 측에서 좀 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다.

총: 네 의견 감사하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발언하겠다. 일단은 인문대학도 아직 방금 전에 이 3가지 안을 들은 상황이라 선불리 단과대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학교 측에서 등록금 환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7.8억이라고 했고 그중에서 1.8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좀 파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나머지 6억이 어디서 왔는지는 자료요청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임의장학기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총: 일단 2020년 가결산안에 나와 있는 임의장학기금은 이미 사용된 금액이고 2021년 예산안에 있는 금액은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인문.정: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6억에 대한 자료 요청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까지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 좀 생각 정리가 안 돼서.

총: 네 알겠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 의견 드리자면 우선 부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전 협의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등록금 협의체를 진행을 했을 때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명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학교 쪽에서는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이 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7.8억이라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6억에 대해서는 자세한 출처는 모르지만 1.8억에 대해서는 교직원분들께서 기부금 형식으로 기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과연 이게 등록금에서 나오는 돈

이 아니라 기부금 형식으로 나오는 돈에 대해서 받게 되는 돈인데 이거를 등록금 환불의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특별장학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억에 대한 출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술대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의장학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임의장학금에 대해서는 특정 과에게 이런 사람한테 줘라 하면서 지정된 장학금이어서 따로 그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의장학금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모아서 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보내서 6억이다 라고 들었었다. 그러니까 일단 6억에 대한 출처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부분도 필요하되 타 부분에서 자투리적인 부분이 남는 게, 남는 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이 돈에서 빼올 수 있지 않나요라고가 아니라 그게 저희가 가서 들으니까 현행법상 이미 기록되어있는 사항이라 함부로 학교에서도 이게 감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이 법이랑 같이 판단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저희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바라봐야한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

간호.비: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짓고 오는 게 아니지 않냐. 2차 회의일 뿐이지. 그랬을 때 오늘 퍼센트를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학교의 재원적인 부분을 더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적장학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더 끌어 모아도 성적장학금 감면 없이 8~10%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퍼센테이지에서 학우분들이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맞추려면 성적장학금 감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년보다 재정이 안 좋은 예년에는 감면을 하고서 6%였으니까 분명히 그것보다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때 저희도 단운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한데 우선적으로 제 생각에는 성적장학금 감면은 없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경경.정: 경경대도 추가발언 하자면 단운위 자체에서도 의견이 안모아진 상태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단운위분들도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가 협의체에서 나온 말들과 그리고 자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완벽하게 공유는 못하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단운위 분들과 공유를 해서 각 단과대별로 입장을 정리해서 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간호.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모든 지금 단위가 단운위에서 얘기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고 추후에 한 번 더 등록금 관련해서 중운위를 거치고 등록금 협의회를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근데 이랬을 때 오늘 진행되는 등록금 협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시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어떨지 제안 드린다.

총: 네 우선 오늘 환불 협의체가 진행이 되는데 해당 부분은 장학사정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보니 만약 3차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내일 아침 중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우선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 우선 등록금 환불과 그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성적장학금 감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명칭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란다. 네 우선 경경대 회장님께서 특별장학금의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7.8억 중 1.8억이 교직원 노조에서 전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의 명목으로써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다른 단과대 대표자분들도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란다.

부총: 일단 경경대에서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모두 학교의 잉여비용이나 아니면 기타비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 1.8억 정도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것을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학생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단 돈이 학생에게 지급되는 그 경위와 학생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명목은 엄연히 등록금 환불이고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는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측에서는 그것을 등록금 환불로 판단을 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비: 저는 등록금 환불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교직원의 기금 1.8억을 제외하고 6억에 대해서만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몇 억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면 등록금 환불로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교직원 금액 1.8억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등록금 환불로 요구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든다. 그 기금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 돈을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등록금 환불로 받을 수 있나...

부총: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용어를 다르게 정립하고 있다. 저희는 등록금 환불이라고 부르고 있고 학교 측은 특별장학금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의 내역을 봤을 때 마련되는 재원의 전체 비용이 모두 등록금 환불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이 과정의 전체적인 경위와 그리고 이것을 처음 학생들이 요구하는 명목은 교육의 질 하락에 따른 등록금 환불 그리고 학교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학생 측에서까지 이 과정의 이름을 특별장학금으로 바꿔서 부를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경경.정: 추가의견 드리자면 저희가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등록금 환불 과정을 진행 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지금 이 협의체에서는 학교 측과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등록금 환불로 명칭을 해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추가적으로 1.8억이라는 그 기부금을 학교 측에서 특별장학금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구안을 저희가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다.

사과.정: 사과대 발언하자면 자원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환불이 진행되는 명목과 그 이유 그러니까 학생사회가 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출처와 명목을 좀 분리해서 보고 출처는 물론 1.8억은 장학금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돈일 수는 있지만 이 요구된 배경과 명목을 봤을 때에는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경경.정: 그럼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보고를 하거나 등록금 협의체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할때 등록금 환불이라고 쓰는게 맞지만 이게 지급되는 형태에서 그 학교 자체의 기록이 나중에 장학금 명목을 띄면 이게 기록이 남는다. 그럼 기록 자체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쓰는 명칭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사과대 측과 부회장님은 그 자체에서도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이 사용 돼야 된다는 의미이신지 궁금하다.

부총: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생 측에서 등록금 환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다. 그러나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논의테이블에서 우리가 등록금 환불 명칭을 할 것을 기본전제조건으로 깔고 가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등록금 환불 명칭이 아니면 등록금 환불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에서도 학생 측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용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특별장학금으로 그 이름으로 공지를 하고 지급이 된 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측의 용어사용을 전제로 하고 이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대로 우리가 따라 가야겠지만 그러나 등록금

환불이라는 요구의 사용에 대한 요구는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측 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계속 하도록 하고 그것이 실제 지급될 때는 학교 측에서는 특별장학금 용어를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측에서까지 그것을 특별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르거나 인지하지는 않는 선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다.

간호.비: 부총학생회장님이랑 사과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저희가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여서 대표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등록금 환불이라는 네임으로 요구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억에 대해서는 그 기금 자체의 배경이 교직원분들께서 원래 모아둔 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금 환불로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 1.8억을 제외시키고 차라리 다른 그 1.8억은 장학금 목적으로 따로 사용해야하지 않나 이걸 분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한다.

경경.정: 저도 간호대 비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요구안 자체에 등록금 환불 명칭 사용을 요구를 한다면 그 기부금 자체는 이 등록금 환불내역에서 빠져야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만약에 등록금 환불 명칭 사용을 요구를 할거면 그 1.8억에 대해서는 기타 장학금으로 돌리고 등록금 환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등록금 환불 명칭을 사용해서 지급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간호.비: 그래서 그 1.8억을 아예 날려버리자 라는 의견은 아니고 6억에 대해서는 등록금 환불로 받고 나머지 1.8억을 특별장학금으로 받는 등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쨌든 등록금 환불로 요구는 하되 그 1.8억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총: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명칭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봤을 때에는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한 이유는 우선 등록금 환불이라는 것은 등록금 자체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결정된 그 등록금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그 6억이라는 금액도 자투리 금액을 모아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금액이지 등록금을 환불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다 해서 학교 측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부총: 그리고 학교 측에서 특별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이 재원중의 일부인 1.8억이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등록금 환불이라는 그 용어가 포함하는 함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어떤 그 비용의 출처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거를 가지고 저희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재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테이블에서 용어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용어에 대해서 학교 측과 다시 갑론을박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학생 측에서 이 등록금 환불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명분을 명확히 가지고 학생사회에서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사과.정: 사과대 회장 추가발언하면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시설물이 이용 불가하고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이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데 해당 비용이 조달하는 걸 교직원 기부금에서 가져오겠다고 결정한 것은 학교 측의 입장이다. 저희가 그걸 학교 측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출처를 고려해서 특별장학금으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 학생사회는 계속해서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경경.정: 제가 이걸 처음에 의견을 낸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1차 등록금 협의 때 학교 측의 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등록금 환불의 명칭을 학교 측에서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1.8억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이 요구안을 유지를 할 것인가 였고 학생사회에서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요구안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요구를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용어를 학교 측에서 사용하든 말든 상관을 안하고 저희는 등록금 환불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저는.

총: 네 우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 측의 요구사항에서 빠자 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은 그렇게 진행을 하되 학생사회 내에서는 등록금 환불의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통공.정: 공대 의견있다.

총: 네

통공.정: 저는 이게 지금 많은 말들이 오고갔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명칭은 저희는 이제 명목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명칭보다는 금액에 눈이 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굳이 명칭에 대해서 등록금 환불로 바꿔 달라 라고 요청할 필요성을 딱히 못 느끼겠다. 방금 총학생회장님이 정리해주신 대로 저희 학생자치에서 일을 할 때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도 등록금 환불이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명칭을 주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특별장학금으로 계속 주장하실 것 같고 그걸 굳이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총학생회장님이 아까 정리해주신 말에 동의한다.

부총: 일단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학교 측에서 특별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뭐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등록금환불이라고 해주냐 라고 하면 학교 측의 입장이 학생 측만큼 강경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에 등록금환불로 요구했던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학생사회에서 등록금 환불의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동의하는 선상에 있는 것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학교 측에서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따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고르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협의의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사실 공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의 큰 포인트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과.정: 조금만 첨언하면 지금 시점에서 학교에서 학생사회가 등록금환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8억을 안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는 특별장학금, 저희는 등록금환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현 시점에서는 계속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0년도 등록금환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명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등록금환불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부총: 그러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을 정리해볼 때, 학교랑 학생들이 따로 뭐 명목이나 이런걸 뭐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사회의 차원에서는 등록금 환불이라는 그 용어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논의를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호.비: 간호대학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동연.정: 동연도 동의한다.

총: 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명칭사용은 방금 논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성적장학금 감면에 대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성적장학금을 10%로 원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조정하여 그 차액을 등록금환불 재원으로 조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간호대학은 앞서 발언했던 바와 같이 성적장학금 감면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감사하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통공.정: 공대 다른 의견 있다.

총: 네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잠시 제가 아직 정리가 잘 안되서 30초만 기다려주실 수 있는지?

총: 네 알겠다

통공.정: 감사하다.

부총: 일단 아까 의견이 나온대로 학생 측이 10% 성적장학금 1~2% 등록금환불 안을 들고 가서 오늘 결정을 짓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장학금 감면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통공.정: 제가 아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성적장학금 감면에 대해서 저는 중운위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총학생회 측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학우들이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등록금 환불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액인 성적장학금에서 빼서 주느냐 원래 우리한테 주던 것에서 빼서 주면 그게 환불의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학우들의 불만이었고 그게 당연한 말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은 원래 우리에게 주던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서 빼서 등록금을 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은 유지시키면서 등록금을 환불해야한다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현재는 제가 어제 본 자료들이나 현재 학교 측 입장이나 상황을 볼 때는 다른데서 땡겨 올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알렸을 때 그 설문조사와 똑같이 성적장학금 감면을 하지말자라고 학생들이 요구할지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먼저 1번은 학교 측에 예산이 없다면 학교 재정상

예산이 없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명시가 아니라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서 대표자분들이랑 학교 측 대표자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왜 예산이 없는지 학우분들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를 같이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회계자료를 학생들에게 다 깔 수는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했을 때 먼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명시했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액을 땡겨 올 만큼 땡겨 왔을 때 이정도 규모가 된다, 성적장학금 감면을 하면 이정도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성적장학금을 감면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라는 설문조사를 저는 다시 진행하면 저는 이전의 설문조사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운위에서 성적장학금 감면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표자로서 찬성 반대를 주장하기가 부담스럽다.

부총: 일단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등록금 환불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성적장학금의 감면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확정된 틀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성적장학금을 감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냐 안 좋겠냐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의견수렴 과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성적장학금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수차이가 일단 절대적으로 크다. 그 상황에서 성적장학금 비대상자는 성적장학금을 감면하여 성적장학금 파이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더라도 성적장학금 감면 사실 자체에 대한 의견은 또 설문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혹은 정확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 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글썄요... 정확한 통계로써 작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간호.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것은 기반을 다지는 것을 생각하고 학우들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때도 학교의 예산이 얼마큼 있다 그게 최소한 예년과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확답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문을 돌렸을 때 학우분들이 성적장학금 감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지난 등록금 환불을 진행할 때 성적장학금을 감면한 상태로 6% 했을 때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성적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소수고 나머지 전체 학우가 다수인데 그렇다면 그 소수가 희생해서 다수에게 돈을 나눈 것이냐 뭐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저는 성적장학금 감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장학금 관련한 등록금 환불 관련 설문조사를 했던 게 어느 정도의 환불이 보장된 상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돌릴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한 번 돌린다고 했을 때 아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게 과연 옳은 응답일까 맞는 응답일까 그게 정말 다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게 진짜 그 나머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배제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통공.정: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의견도 납득이 간다.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게 기존에 상대평가를 할 때랑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할 때 성적장학금 제 주변에서는 이게 성적장학금을 주는 게 맞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성적장학의 의미가 일단 많이 퇴색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너무 성적을 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 그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보고 싶다. 지금 상대평가를 할 때랑 절대평가를 할 때 성적장학의 비율을 10%로 똑같이 동결을 시키는 게 의미적으로 맞을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다.

총: 네 방금 공대 회장님께서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점 인플레이션이 존재했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우선 제 개인적인 입

장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미가 퇴색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잘 주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준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를 시행한 데에서의 경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학사 운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시험방식과 수업방식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근데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적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간호.비: 더불어서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먼저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럼 절대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부총: 아무튼 절대평가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 아니고 이미 절대평가라는 것은 평가방식의 하나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방식이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별 평가 기준과 성적평가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학생들의 성적이 매겨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돌렸다고 해서 성적장학금을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이해되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총: 네 이에 대해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지난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 근데 거기서 봐도 지금 지난학기 등록금 논의 절차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에 67% 그리고 1931명의 학우분들께서 성적장학금 감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의 절차와 결과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이미 표출을 해주셨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적장학금 감면을 동의하고 등록금 환불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난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정: 우선 사과대는 공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의견이 많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현 상황에서 성적장학금 감면을 한다고 해도 100%도 보증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두 가지 차선택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희가 추후 아니면 오늘이라든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학우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어쨌든 성적장학금 감면 없이 1~2%만 지급이 진행이 된다면 설문조사 결과에는 명백히 8~10%가 굉장히 절대적 다수로 나왔는데 1~2%만 지급되는 경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받은 가결산안이나 예산안의 경우에는 다 아직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추후에 이뤄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최선의 선택은 이제 차선택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사과대 학생회장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왔던 선택지 중에서는 성적장학금 감면이 없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돈에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자료 공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공개범위에 있어서 좀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

인문.정: 인문대학 경경대 회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간호.비: 간호대학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학 동의한다.

(이하 동의 의견)

총: 네. 우선 금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예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6억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투리 돈이나 가용한 금액을 찾아 달라 라고 우선적으로 요청을 드리겠다. 또한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6억에 대한 출처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다. 세 번째로 명칭과 관련된 것들은 우선 행정 절차상으로는 불가피하게 특별장학금의 명칭을 사용을 하되 학생사회 내에서는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서 학생 측은 등록금 환불의 명칭을 사용을 하겠다. 이 정도로 결정된 것 같은데 더 있으신지?

통공.정: 그...

총: 네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회장님 마이크가 꺼져서 안 들린다.

통공.정: 네 죄송하다. 오늘 협의체에서 예산을 굶어모았을 때 땡겨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회계 자료는 공개가 불가능하니까 말로써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예산이 없는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냥 회의 결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협의체 자리가 아니고 추후에라도 학교 측이랑 학생자치랑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이 없는 사유를 말로써 설명할 수 있게 같이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오늘 협의체 회의에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일단 미리 말씀은 드리겠다.

총: 네. 학우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반드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해당 내용도 요구하겠다.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 2월 11일에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이 되어야 하고 2월 8일까지 장학사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학사정이 마무리 되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학생지원팀이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혹여나 3차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내일 오전중이나 점심 중에 소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중운위 임시회의도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한 번 더 소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문.정: 인문대학 발언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약간은 역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방금 결정한 사안과 달라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앞선 대표자님들의 말을 제가 반박하는 거는 그냥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온 저희의 의견을 역행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최소 34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알바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임들도 힘들게 본인들이 모은 돈을 자녀들의 학비에 쓰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 환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가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해준 적이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고 학생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등

등록금을 내는데 학교 측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의견을 저희가 과연 고려해야하는지도 사실 학교에 의견을 저희가 고려해야 하면서까지 그리고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까지 이렇게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1~2%, 4~5% 이러한 퍼센테이지를 애초에 주고 너희보고 선택해라고 할꺼면 학교 측에서 애초에 팻말을 나눠주지 왜 이러한 협의체를 번거롭게 두 번이나 또 세 번이나 열어서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좀 생각, 학생들의 마음 이런걸 조금 오늘 사실 제가 등록금 환불 협의체나 지난 간담회에 갔으면 학교본부 앞에도 대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그렇지 못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학교 측에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혹시 제가 지금 한 말이 말로 혹시 조금 불편하셨거나 제가 앞선 지금 중운위의 모든 내용을 조금 역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다. 죄송하다.

부총: 네 일단 그 방금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사실 모든 대표자들이 마음속으로 공유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안들을 여러 개 논의하는 것이고 일단 지금 저희 논의에서 수렴된 내용과 요청사항들을 봤을 때 가용예산을 더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그리고 6억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 달라라는 것을 물어보려면 지금 5시에 진행되는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나오기에는 어렵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밤중이나 임시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오늘 확정되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달을 하고 요청할 자료들 전달을 하는 걸로 하고 협의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그냥 다만 제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나왔던 것들 저도 다 동의를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학생들의 사정을 좀 학교본부가 진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다.

총: 네 알겠다. 좋은 의견 감사하다. 다가오는 1학기에도 비대면 학사 운영이 예정되어있다. 1학기는 뭐 장학금 확대를 하던지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간호.비: 추가의견 있다.

총: 네

간호.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운위나 아니면 임시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인데 그러면 오늘 회의 때 느껴지는 것들이 단운위에서 좀 미리 논의를 하고 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단운위를 가서 어떤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올지 좀 정리를 해서 공통적으로 다 논의를 해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 플러스로 단운위에서 각자 더 논의를 해서 가져오는 게 어떨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논의를 다 같이 단운위에 가서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떨지?

총: 네 우선 차기 중운위 임시회의는 오늘 밤중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단과대 대표자분들께서는 일정 고려 하셔서 단운위 회의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단운위에서 내용 공유와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들이 성적장학금 감면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 명칭과 관련

된 내용도 한번 단과대 의견 수합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다른 내용들은 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따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여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자료요청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간호.비: 혹시 단운위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더 비공개 자료 열람하고 그걸 기반으
로 행정부처간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그 학교 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질문이 오고 갔
다라는 내용을 공유해도 괜찮은지?

총: 네 뭐 해당 질답 내용은 어차피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 그 질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셔
도 되지만 자료는 대외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공개는 좀 삼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간호.비: 네 감사하다.

부총: 아무튼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성적장학금 감면 여부를 포함해서 저희가 알고 있
는 가용예산이 일단 7.8억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장학금 감면여부를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와, 아까 말씀드린 뭐 사학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추후 요구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지 등을 포함한 단위
요구를 최대한 빨리 정립을 해주셔서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총: 네 우선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임시회의가 잦고 급하게 전달할 것도 많고 의견을 수합할 것도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임시회의 소집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앙운영위원회 8-2차 임시회의 마치도록
하겠다. 수고 많으셨다.

3. 기타 안건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